

##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대한 권리\*

### : 제주도 잠수(潛艘)의 사례에서

안미정

#### 目 次

- |               |                  |
|---------------|------------------|
| 1. 머리말        | 4. 해초의 공동 채취     |
| 2. 마을의 개관     | 5. 자원에 대한 사회적 권리 |
| 3. 잠수들의 수중 어로 | 6. 맺음말           |

#### 【 초 록 】

이 글은 제주도 잠수[잠녀, 해녀]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과거의 어로방식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여성들의 해양자원에 대한 권리라는 맥락에서 살펴본 것이다. 잠수들이 기계적 장치 없이 “물질”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해양 자원의 남획, 고갈을 막으며, 새로운 어로자의 출현으로 인한 기존 잠수들의 퇴출과 자원에 대한 권리가 약화되고,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해초채취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어로는 마을어장을 공유하고 있는 개별주체(각 가구)들이 그들의 자원에 대한 권리

필자: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 이 글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인력장려기금에 의해 연구되었으며(과제번호: A00008)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글에 담긴 여러 아이디어와 관점들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여성의 생활사와 제주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눴던 이지치 노리꼬(伊地知紀子)와 권현익 선생님과 대화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꼼꼼하게 지적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152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가 상호 질적으로 공평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있는 것임을 기술하였다. 마을어장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쉽사리 초래되지 않는 것은 물질이라는 어로방식과 바다에 대한 종교적 세계관, 어장을 관리 감독하는 자율적 조직 활동 등이 있기 때문이다. 잠수들의 “물질”은 과거의 잔존물이 아니라 해양자원에 대한 권리를 지속시키려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어로라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 잠수(해녀), 물질(나잠어로), 해양자원, 공동어로(채집), 자원 권리, 마을어장, 잠수굿, 공유지, 제주도.

## 1. 머리말

농어촌 지역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업 노동은 지리적으로 한 ‘마을’이라는 범주 안에서 ‘전통적’인 생계활동으로 다루어지곤 한다. 어촌은 농촌과 생태적으로 서로 다른 조건에 위치하고 인간과 자원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다르다.<sup>1)</sup> 그럼에도 어촌 지역의 생태적·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함이 없이 어로는 농경의 부수적이거나 혹은 대비되는 생업으로써 조망되어 왔다.<sup>2)</sup> 한국의 어촌사회 연구가 농촌 중심의 시각에서 조망되어 온 한계 속에서 여성들의 채집 어로활동은 남성중심의 그물 어로활동에 가려지거나 부수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갯벌과 해안가에서 채집하는 여성들의 어로는 단지 오래된 낡은 어로방식이라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특히 제주도의 잠

1) 한상복, 1976, “농촌과 어촌의 생태적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제8집, 87~90쪽.

2) 전경수 편, 1992, 『韓國漁村의 低發展과 適應』, 집문당, 3쪽.

수(潛嫂 혹은 잠녀, 해녀)들의<sup>3)</sup> 어로는 연약한 여성이 바다에서 자맥질하는 ‘독특한’ 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간이 바다 속에서 특별한 기계장치 없이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수렵·채집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어로방식이다. 인도네시아의 바조우(Bajau)족과 대만의 아미(Ami)족, 그리고 필리핀과 태국, 멜라네시아, 남태평양의 많은 섬 등에서도 맨 몸으로 어로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sup>4)</sup> 그럼에도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바다 속에서 하는 어로는 세계적

3) 본 논문에서 제주도의 여성 나잠업자(裸潛業者, plain diver)를 지역의 용어인 “잠수(潛嫂, 잠수)”로 표기하였다. 이들은 잠녀(潛女, 잠녀)라고도 불려 왔으며, 흔히 “해녀”로 알려지고 있다. 잠수(潛嫂)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해녀(海女)는 생산적인 노동이나 유희적인 활동을 불문하고 ‘바다의 여자’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 버리는 반면 잠수는 그들의 어로 특성인 자맥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제주도 나잠업자들은 급감하였고 현재 나잠업은 기혼여성의 일로 고착화되고 있어서 과거 미혼과 기혼, 15세 안팎 소녀까지 아우르던 잠녀와는 다른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일본의 옛 문헌(927년 『延喜式』)에서 잠녀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용어는 한·일간에 형성되어 온 옛 해양세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용어라 여겨지며, 나잠업이 왕성하였던 제주도의 옛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제주도의 잠녀가 나오는 반면(숙종 28년, 1702년) 비슷한 시기(숙종 40년, 1714년)에 기록된 해녀는 촌락의 부녀자들과 물물교환 하였던 일본인을 의미하고 있다(<http://sillok.history.go.kr>, 2007년 9월 9일 “해녀” 검색).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잠수(潛嫂)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유사한 나잠업자들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갖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보편화된 용어에 앞서 지역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문화를 다룸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4) 밀다 뒤르케, 2003, 『바다를 방랑하는 사람들』, 장혜경 역, 큰나무; 아키미치 토모야(秋道 智彌), 2005, 『해양인류학』, 이선에 역, 민속원; 최인학, 1978, “Ami 족의 의식과 사회조직,” 『한국문화인류학』제 10집, 64쪽; NHK special, 1992, “サンゴ礁の海人・ムトウ: 南太平洋ムドック島,” <人間は何を食べてきたか 海と川の狩人たち> 第3集. 맨몸으로 한다는 것은 알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으로 일본과 제주도 밖에 없는 “특이한 생활문화의 전승자”로 비춰져 왔다.<sup>5)</sup> 한국과 일본의 나잠업자(裸潛業者)들이 눈에 띄게 활발한 것은 이들의 어로활동과 어획물이 국가의 법적 지배와 시장경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그리고 한국의 나잠어사가 예로부터 제주도에서만 이뤄져 온 것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이다.<sup>6)</sup> 일본에서는 남녀의 나잠업자들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한국은 ‘여성의 일’이라는 문화적 규범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나잠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다른 지역의 나잠업자들보다 연안 어로에서 주체적이며 그들만의 어로조직(“잠수회/해녀회”)을 운영하며 어장의 자원 관리에 주도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2006년 기준 제주도의 잠수인구는 5천 4백 6명으로 제주도 어업인구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sup>7)</sup> 이들의 어로활동은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에도 크게 기여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8)</sup> 잠수 사회의 남녀 성역할 연구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활동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어느 한 성에 의해 지배되지 않은 “양편 비우세

- 
- 5) 田辺 悟, 1990, 『日本蠶人傳統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709쪽; 김영돈, 김범국, 서경림, 1986, “海女調査研究,” 『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45쪽~268쪽.
- 6) 전라남도 여천 송도와 해남의 군곡리, 경상남도 통영의 연대도와 삼천포의 특도, 함경북도 웅기 서포항 등의 패총에서 신석기시대나 원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뼈로 만든 작살, 빗창, 찌르개 등이 발굴되었다(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3, <해녀-물에꾼들의 삶과 문화>, 6쪽).
- 7) 제주특별자치도, 2007, <해양수산현황>, 59쪽. 이 가운데 30대 미만은 없으며 50세 이상의 고령 잠수가 90.4%이다.
- 8) 제주도, 1996, 『濟州의 海女』,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김영돈, 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안미정, 1998,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제15집, 153~193쪽; 진관훈, 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각.

사회”라는 논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로가 농경에 비하여 천시되어온 유교주의 문화 속에서 잠수들의 어로활동은 여성의 희생과 강인한 생활력을 칭송하는 담화로 재생산되어 왔다. 일찍이 화폐경제를 경험하고 타지로 이동하며 임노동 하였던 여성들의 생활사는 지역사회에서 공식적 조직이나 제도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제주도의 잠수는 제주여성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인격성으로서 가내적/사적 영역에 있는 담화로 머물러 온 것이다.<sup>10)</sup> 최근 이들의 어로방식(곧 “물질”)은 제주도의 ‘전통문화’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인하여 잠수의 보존방안을 둘러싼 제주 지역사회의 여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sup>11)</sup>

이 글은 제주도 잠수들의 사례를 통해 해안마을 여성들의 공동어로 과정을 살펴봄에, 그들의 어로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생활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지배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로이며, 어장의 자원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유지하는 전략으로서 물질이라는 어로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현재 제주도 해안마을의 연안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수중의 수렵·채집어로는 나잠어로라는 방식으로만 입어가 가능하다. 흔히 “물질”이라 부르는 어로방식으로만 소라와 전복, 해삼 등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수들

9) 조혜정, 1982,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성별분업에 근거한 남녀 평등에 관하여,”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상복 편, 심설당, 143~168쪽.

10) 로잘도(Rosaldo)의 공적/사적 영역의 개념에 따라 사용하였다(Rosaldo and Lamphere(ed.), 1974, *Woma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p. 23.).

11) 2006년 제주 지역 언론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제주 잠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여 2007년에도 <제주해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방향>이라는 국제 심포지움(2007년 10월 25일~26일, 제주학회와 제주해녀박물관 공동주최)이 열렸다.(최근 제주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어로를 보호·육성하려는 노력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의 물질이란 어로방식일 뿐만 아니라 특정 자원에 접근/채취할 수 있는 자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이 기계적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오래된 과거의 방식을 지속하고 있는 배경에는 특정의 어로 방식으로만 바다 속 해양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배타적 권리를 지속시키는 의미가 있다. 곧 어로방식을 통하여 어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양 어로 활동은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이 어촌의 사회조직 및 협동적 공동어로를 설명하는 틀이 되어 왔다.<sup>12)</sup> 공식적 법률에 의하여 한국의 연안 바다는 마을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연안자원에 대한 전용권(專用權)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어로공간(즉 마을어장)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어촌의 공동체적 성격이 지적되어 왔다.<sup>13)</sup>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계적 기술 도입이 장려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체제에 결합되어 있는 어촌사회에서 단지 생산의 도구와 토대를 공유함으로써 집단적 공동체성이 형성된다고 하기에는 보다 많이 설명해야하는 사회적 상황들이 있다. 어로장비의 발달로 어로의 불예측성이나 위험성은 나아지게 되었으나 어업의 사회적 조건은 악화되어 인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한 배에 승선하는 인원 또한 감소하는 등 여럿이 함께 협동하는 어로활동이란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이 공유하는 생산의 토대인 마을어장에서 어떻게 그들 사이의 공동

12) Acheson, James M., 1981, *Anthropology of Fishing*,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10, pp. 275~316.; Han, Sang-Bok, 1976, *Korean Fisherma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3) 김영돈, 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정근식, 김 준, 1993, “도서지역의 경제적 변동과 마을체계: 소안도를 중심으로,” 『島嶼文化』 제 11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301~332쪽; 김 준, 2004, 『어촌사회변동과 해양생태』, 민속원.

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공동의 마을어장이 있다하여 주민들 사이의 집단적 협력성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인가? 어로공간을 공유(共有)한다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협력적인 공동어로를 설명하는 배경은 될 수 있으나 공유지(the Commons)를 가진 모든 사회가 언제나 공동체성을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 하딘(Hardin 1968)의 주장처럼 공유지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경쟁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14)</sup> 해양어로에 관하여 팔슨(Pálsson)은 아이슬란드 어부들의 어로 활동을 사례로 어로공간/자원에 대한 접근이 사회마다 다양함을 보여주었다.<sup>15)</sup>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여러 지역을 연구하여 온 해양인류학자 아키미치(秋道)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공유지나 공유자원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회 속에서 문화적 관습으로 생성, 정착하고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변용과 지속, 소멸의 과정을 거쳐 왔다”고 설명하였다.<sup>16)</sup> 따라서 공유지를 이용하는 사회적 제도와 관습, 문화적 규범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마을주민들이 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어장에서 협력적 어로를 행하며 어장이 황폐화되는 비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해안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마을어장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온 관행과 제도, 문화적 규범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4)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지(목장)를 개인들이 무제한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더 이상 모두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결말을 초래한다는 말한다. 하딘은 이러한 비극의 본질을 자원의 공유(共有)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15) Pálsson, Gísli, 1991, *Coastal Economies Cultural Account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 49~53.

16) 秋道 智彌, 2004, 『コモンズの人類學: 文化・歴史・生態』, 内外印刷柱式會社, 217쪽.

어촌사회의 복잡한 관습과 제도들은 근대적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고루한 생활방식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sup>17)</sup> 그러나 제주도 해안마을에서 현지연구를 하였던 이지치(伊地知)는 근대화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에도 공동노동이라는 관행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부응하며 생활세계 속에서 창조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sup>18)</sup> 그녀는 마을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다양한 “제”를 구성하는 사례를 보여주며 이는 단순히 화폐경제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제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합리성만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공동성을 공유하여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 사회의 연구는 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비교·적용·평가하거나 현대적 방식으로 변모하는 적응의 관점보다 마을주민들의 생활세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제주도 잠수들의 어로를 사례로하여 집단적 협업양상과 공동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유자원에 대한 개별적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내용으로 제시될 두 가지 공동어로 사례는 첫째, 어촌계 잠수회(潛嫂會)의 물질이며 둘째, 모든 어촌계원이 함께 하는 공동 해초 채취이다.

이 글의 내용으로 삼고있는 것은 2005년 제주도 북동쪽 해안에 있는 김녕리에서 현지연구(fieldwork)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sup>19)</sup> 1년간 연구자는 마을 어촌계의 하부조직인 잠수회의 회원들과

17) 최재율, 1996(1991), 『韓日農漁村의 社會學的理解』, 裕豊出版社.; 김 승, 1999, 『漁村漁業制度의 社會經濟的 調査研究』, 향하사.

18) 伊地知 紀子, 2004, “生活共同原理の混淆と創造: 韓國·濟州島の生活 실천から, 『文化人類學』, 69卷 2号, p. 302.

19) 마을의 이름과 정보제공자들의 이름은 정보제공자에 대한 윤리와 그들의 사회관계를 고려하여 가명으로 표기하였으며 본 문의 제주(濟州語)는 첫



“물질”을 하였으며, 어촌계에 소속된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우뭇가사리 채취와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참여관찰 하였다. 모든 잠수들이 농사를 겸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는 그들의 일상적 생활패턴을 따라 마늘과 양파 농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생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집단적·개별적 여러 의례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잠수회(潛嫂會)의 집단적 연례 의례인 “잠수굿(海神祭)”의 경우 연구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참여했었다. 자료 수집은 기본적으로 참여관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개별적인 심층면담의 경우도 일터에서 혹은 한담(閑談)을 즐기는 집에서 이루어졌다. 부분적으로 민족지적 기술(ethnographic description)로써 그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 2. 마을의 개관

김녕리는 제주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제주시내로부터는 2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제주도 본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북위 33.3°, 동경 126.5°).<sup>20)</sup> 겨울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매섭게 불고 바람을 따라 날아간 모래로 인해 해안으로부터 1km에 떨어진 밭에서도 사질토양이 나타난다. 마을의 동서쪽 어귀에는 각각 오래된 포구가 있는데 동쪽의 포구를 통하여 한말(韓末)까지 미역상선이 육지를 오갔으며 서쪽 포구는 식민지 시대에 오사카와 제주도를 왕래하던 군대환(君代丸)의 제주도 첫 기항지였다. 이 포구를 통해 물류 교역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이외에도 두 개의 포구가 더 있었

사용에 한하여 “ ”로 표기하였다. 별도의 제시가 없는 각종 통계와 잠수들의 나이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 국립해양조사원, 2005, <어업정보도: 제주도 부근>, 13쪽.

## 160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으나 동력선이 등장하고 멀치 때가 사라지면서 어선어업도 쇠퇴하여 지금은 서쪽의 포구만이 이용되고 있다.

마을의 민가들은 바닷가를 향해 모여 있다. 마을출신의 한 독지가가 작성한 향토지에 따르면 마을은 해안가에 분포한 용천수를 중심으로 씨족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농경을 하며 점차 큰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한다.<sup>21)</sup> 상수도가 개발된 1970년대 이전까지 해안의 암반 사이에서 솟아나는 담수가 마을주민들의 유용한 식수원이었다.

마을의 총면적은 19.925km<sup>2</sup>로 넓지만 농경지는 4.14km<sup>2</sup>로 협소한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11.8℃, 강수량은 1,444mm로 제주도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토심(土深)이 얇고 사질토양이 대부분이라 농경에는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역 농협의 자료를 근거로 마을의 주요 작물인 마늘과 양파의 2005년도 생산량을 가구당 평균소득으로 환산하여 보면 마늘은 연간 7백 5십 6만원, 양파는 1백 7십 6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서 인건비와 농약, 종자비 등을 제외하면 순소득은 더욱 낮아진다. 그럼에도 이들 작물은 단위 면적당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서 선택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토심을 키우기 위해 밭에다 흙을 실어 나르며 여성들은 작물의 생육을 돕기 위해 하나의 잡초도 남김없이 뽑아낸다. 또한 밭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뼘의 땅도 방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농토의 사정과 달리 김녕리의 연안의 생태환경은 사뭇 다르다. 완만히 흘러내린 용암 대지가 해저에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안의 수심에 따라 다양한 해양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봄에는 해초를 채취할 수 있고 여름 한때를 제외하고 잠수들이 연중 소라잡이(이를 “헛물질”이라고 한다)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의 북쪽 지역을 아우르는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 관할지역 가운데 김녕리의

21) 박수양, 1986, 『김녕리 향토지』, 127쪽.

해산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품질 또한 우수하다.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주기적인 패턴을 이용하여 남성들은 그물을 이용하여 멸치잡이를 했으나 멸치 떼가 사라진 지금 물질하는 마을여성들의 나잠어로만이 주요한 연안어로가 되고 있다. 마을 어촌계의 하부조직으로 어부회와 잠수회가 있다. 어부회는 기름 값과 인건비의 상승, 어족 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여척의 소형어선을 가진 선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잠수회에 소속된 잠수들은 160명에 이른다.<sup>22)</sup> 2005년 상반기까지 어촌계 가입은 가구당 1인씩 가입할 수 있었으므로 잠수회에 가입된 가구 수는 160 가구임을 의미한다.

2005년을 기준으로 마을에 거주하는 총인구는 2,505명으로 남자(1,205명)보다 여자(1,300명)가 조금 많았다. 총 1,159세대가 거주하며 동서쪽으로 각각 4개씩 모두 8개의 동네로 구성되어 있다. 김녕리는 본래 하나의 마을이었으나 행정상으로는 오랫동안 동쪽과 서쪽 나뉘어져 있었다. 187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나뉘진 것이 1999년 주민투표를 거쳐 2000년 1월을 기해 김녕리로 통합되었다.<sup>23)</sup> 이로써 125년 만에 통합 하게 된 것이다.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동·서김

22) 2005년 기준의 집계이며 동쪽 잠수회원은 100명, 서쪽 잠수회원은 60명이다. 그러나 은퇴한 잠수들의 입어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마을어장의 입어자는 이보다 많으나 반면 실질적으로 연중 왕성하게 물질하는 잠수들은 110여명 가량이다.

23) 구좌읍, 2000, 『舊左邑誌』, 태화인쇄사, 512쪽. 분리된 연도에 대해서는 일제시기인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나뉘지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I』, 제주대학교출판부, 280쪽). 마을사람들은 마을이 커서 리민이 단합할 것을 두려워 한 일제가 마을을 분리한 것이라고도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두 마을의 민가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음에도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생활권을 만들어 왔었다는 것이다. 마을의 원로인 김여문 옹(92세)은 대어섯 살 적에 동쪽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자 이 골목길에 금줄을 쳐서 왕래를 막았었다고 하였다(2005년 12월 14일, 자택에서 인터뷰 내용 중).

## 162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녕리 사이에 이권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마을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sup>24)</sup> 두 마을에 있었던 공식기관과 조직들(리사무소, 어촌계, 청년회, 노인회 등)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어촌계의 하부조직인 동·서 잠수회만은 통합되지 않았다. 각 잠수회는 서로의 어로영역을 지키면서 잠수회의 운영도 기존과 같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서 잠수회별로 잠수회장과 총무, 각 동네별 잠수회장들이 있어 실질적으로 두 개의 잠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총회장 직을 겸으로써 두 잠수회는 한 잠수회임을 표방하기도 한다. 이렇게 두 잠수회가 통합하지 않고 독자적 운영을 하는 것은 동쪽 잠수들이 통합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마을의 육상 토지는 서쪽이 비옥하고 바다는 동쪽이 좋다. 따라서 두 잠수회가 어장을 통합하면 서쪽 잠수들이 동쪽 바다에서 물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동쪽 잠수들에게 그들의 좋은 어장을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서쪽 잠수들과 공유하는 것이 된다. 반면 동쪽 잠수들이 비옥한 서쪽의 토지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쪽의 어장을 공유한다면 서쪽 잠수들에게만 이로운 것으로 두 잠수회간의 통합은 등가 교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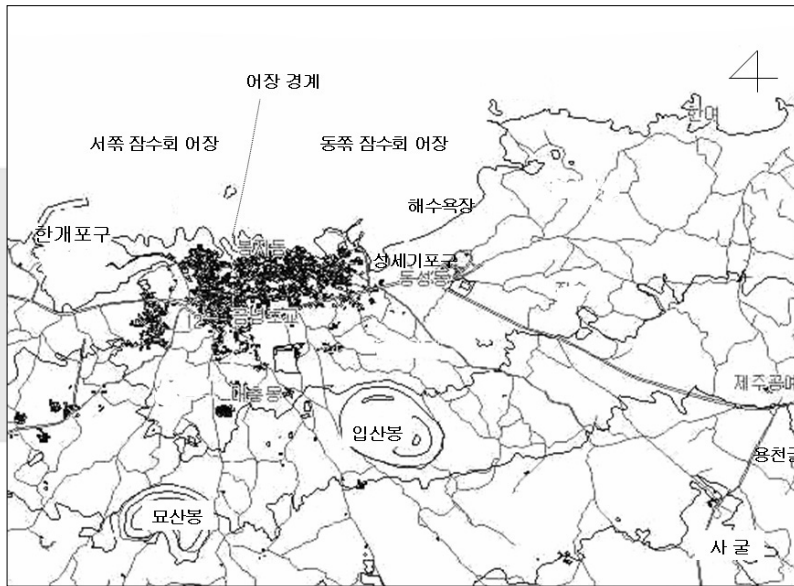
김녕리는 12세기 중반에 현청이 있었던 곳이며, 1897년에 이르러서는 마을 호수가 800호로 제주읍(현 제주시)의 다음 가는 “천하대촌(天下大村)”이었다고 한다.<sup>25)</sup> 또한 선사 시대부터 어로와 수렵에 의한 혈거민의 생활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선사유적지들이 있다.<sup>26)</sup> 현재 마을의 주요 성씨는 한(韓)씨, 안(安)씨, 김(金)씨, 박(朴)씨, 임(任)씨, 강

24) 2005년 5월 28일, 강정윤씨의 인터뷰 내용, 마을 안의 000사무실에서.

25) 박수양, 1986, 앞의 책, 131쪽.

26)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1, <유적수합조사보고서>.

(姜)씨, 윤(尹)씨 등 여러 성씨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씨 집안은 잠수들 사이에서도 “한칩의 딸(한씨 집안의 딸)”이라는 표현이 회자될 만큼 마을 안에서 유력한 집안임을 암시하고 있다. 마을을 동서로 가르는 안길에는 식당, 새마을금고, 어촌계, 농협, 우체국, 파출소, 약국, 병원, 사진관, 어물전, 주유소 등이 있다.



〈그림 1〉 마을의 오름과 마을어장

\* 국토지리정보원(www.ngi.go.kr)의 지형도에 연구자가 재작성.

이웃하고 있는 다른 해안마을에서는 관광체험어장과 연안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김녕리에는 서쪽에 있는 4개의 육상양식장을 제외하고 동쪽 해안지역은 어떠한 개발사업도 잠수들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 내륙으로 올라간 고지대(“웃드르”)의 마을에서는 농사와 목축을 하는 마을이 있다. 2006년 마을주민들은 옛 마을공동목장을 관광개

164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발하여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상 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마을안의 두 개의 마트(Mart)를 이용하지만 부녀자들은 제주시내와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오일장에서 쇼핑을 즐긴다.

### 3. 잠수들의 수중 어로

#### 1) 물질한다는 것

김녕리 어촌계에 가입한 계원들은 640명으로 이들은 모두 상품성 있는 연안 해초를 채취할 수 있는 자원 권리를 가지고 있다.<sup>27)</sup> 반면 이동성을 가진 그 외의 해산물들은 물질할 수 있는 잠수들만이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라와 전복, 문어, 성게 등은 바다 속에 들어가 자맥질을 하여야 적당한 크기 이상의 것을 잡을 수가 있다. 연안의 해양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 거주하며 자기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여성이어야만 하는 불문율이 있다. 잠수회원들은 마을출신의 여성이거나 마을출신의 남성과 혼인한 여성들이다. 공식적으로는 수협이 조합원이며, 어촌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잠수회의 동의를 없다면 계원이라 하더라도 물질을 할 수 없다. 제주도내의 모든 어촌계 잠수회가 이러한 불문율에 있어 대동소이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질이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데에는 기존 잠수들에 의해 여성의 영역으로 지속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그 까닭은 마을어장의 자원에 대한 접근/채취의 권리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27) 2005년 기준으로 이 가운데에 잠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나잡업자를 연구한 플래쓰(Plath)는 산업사회에서 고도의 테크놀로지에 비견하여 나잡어로자들의 수중채취 활동은 생태적 지식과 노하우(knowhow)를 가진 몸의 기술("live-ware")이라 지적하였다.<sup>28)</sup> 제주도 잠수들 역시 해저(海底)의 지형에 대한 인지적 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개념적으로 하나의 '바다밭'과 같다. 수중어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잠수들은 자신의 몸의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류가 흐르는 방향과 일기 변동에 따른 바다의 상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해양 동식물에 대한 생태적 지식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육상의 지형지물로 위치를 가늠하고 안개와 높은 파도 속에서도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신만의 노하우들이 있다. 이러한 지식과 노하우는 단기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익혀지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가 물질을 배우던 첫 날 물질을 가르쳐주던 젊은 잠수 헤란(49세, 중군)은 단지 두 가지만을 요구했었다. 첫째는 "헤엄쳐 보라", 둘째는 물(바다) 아래에 있는 "아무것이라도 집어 오라"는 것이었다. 고작 파래를 집어 온 연구자에게 그녀는 곧장 (바다로) "가자!"라고 하였다. 어떻게 호흡을 가다듬고 내쉬며, 어떻게 몸을 물 아래로 향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떤 곳에 오분자기가 많으며 문어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 지 등 필요한 지식들은 자신의 몸으로 터득해야 하는 것이었다.

잠수들은 물질 그 자체가 개별적 노동이라 하여 기량이 미약하거나 채취경쟁자인 동료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는다. 몇몇 잠수들은 몸이 물 아래로 향하지 않는 연구자의 허리를 억지로 눌러보기도 하고, 수심 얇은 곳에 눈에 보이도록 소리를 놓은 후 집어 와 보도록 훈련을 시키기도 하였다. 게다가 나의 그물자루에다 그들이 잡은 소리를 집어넣어 빈 자루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리의 증여는

28) 데이비드 플래쓰(David W. Plath), 1997, "환경에 대한 적응: 일본 헤너(あま)의 경우," 『耽羅文化』 제18집, 499쪽.

수심 깊은 곳에 다니는 “상군” 들로부터 수심 얇은 곳에서 작업하는 “하군” 잠수들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였다. 한번은 조류가 흐르는 방향을 무시하고 가까운 직선방향으로 헤엄을 쳐 갔던 연구자에게 숙희(49세, 하군)는 작업장으로 돌아오자마자 모두가 알아듣도록 큰소리로 욕을 해댔다. 위험을 자초하였던 연구자의 행동은 주변에 있던 그녀에게도 위험을 안겨주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 일은 연구자가 조류의 흐름을 모르고 바다를 가로질러 가려고 하여 벌어진 일이었다.) 작업장 안에 있던 누구도 그 욕을 만류하지 않았고 욕을 끝낸 숙희는 자신이 잡은 고기 한 마리를 반찬거리 하라며 나에게 던져주었다. 잠수들은 하루 동안 작업할 어로 공간을 계획하고 몇몇이 함께 이동해가며 작업을 하였다. 이들은 서로 “멤버(member)”가 되었고 물질하는 도중에도 서로의 위치를 파악해두고 있었다. 어로 구역이 같은 동료끼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벗이 되어 한 집에서 한담을 즐기거나 친목회를 만들고 농사일과 집안의 경조사를 함께 조력하는 등 그들은 생활세계의 상호 연대자라 할 수 있다.



〈사진 1〉 바다로 나가기 전 어촌계장과 잠수들(2005.10.25)



숙희는 같은 구역에서 일하는 하군인 난희(48세, 하군)와 동료이며 이들은 진해(51세, 중군)의 집에서 한담(閑談)을 즐기는 젊은 잠수들이다. 집주인 진해는 난희와 “언니 동생 하는” 친한 사이이다. 진해가 가을에 많은 벌초를 해야 했을 때 숙희와 난희가 거들었다. 난희가 제 사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였을 때 진해가 그녀의 일을 도왔다. 난희는 8개의 “친목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소상 때에는 각 모임의 회원들이 물질을 하지 않고 음식장만을 거들었다. 젊은 잠수들은 여러 개의 모임을 만들고 있었다. 마늘과 양파를 심거나 수확하는 때에도 모임의 성원들은 서로 돌아가며 밭일을 하였다. 아예 특정 모임을 구성할 때 밭일의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임들은 같은 나이, 같은 동네, 동창,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 등으로 순발력 있게 조직되었다. 노동력 교환과 더불어 이들 사이에 정보가 오가고 친목도모가 이루어졌다. 매월 혹은 격월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들은 1만 원 가량을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였고 후에 분배하여 값비싼 가전제품, 귀중품을 사거나 여행경비로 쓰기도 하였다. 이렇게 “친목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살아가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목적적인 생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더 많은 소라를 채취하기 위해 같은 구역에서 동료와 경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의식과 상호조력이 가능한 것은 그들의 어로상황으로부터 도출된다. 해양어로는 육상의 농경에 비하여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곤 한다. 게다가 잠수들의 사용하는 어로도구는 스쿠버다이빙의 장비에 비하여 지극히 조출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개는 직접 제작하거나 마을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몸을 수중환경에 적응시켜야 하며 수중생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감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다에서 자신의 몸을 띄운 채 어로해야 하는 잠수들에게 인근의 동료

168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는 그녀의 위험을 방지해주는 보호막과 다르지 않다. 기계적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나잠어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가능성을 집단적으로 일하는 동료들이 서로 방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동료들 사이의 연대의식으로 새로운 기계 기술의 도입은 차단될 수 있다. 생산성이 높은 어로기술의 도입 된다면 나잠어로의 방식이 퇴출 될 뿐만 아니라 연안바다의 자원은 그들의 권리 밖에 있게 된다. 즉 물질과 같은 특정의 어로를 할 수 있는 자들의 연대 위에 마을어장/자원에 대한 권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원에 대한 욕심과 경쟁적인 이기심이 없지 않음에도 잠수회원들은 작업시간과 날짜를 지켜서 집단적 어로를 행한다. 또한 스쿠버다이버와 같이 산소통을 매고 할 수 있는 잠수도 반드시 마을어장에서는 '물질' 만을 하였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저지시킬 수 있는 것은 물질 방식을 매개로 형성된 그들 사이의 협력적 사회적 관계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채취의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역으로 새로운 어로기술이 도입된다면 그것을 매개로 하여 어로자들의 기존의 사회적 관계도 바뀌게 될 것이다. 잠수들은 마을어장/자원을 누구나 채취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 자원고갈의 위험이 증폭되거나 자원에 대한 권리가 약화되고 소수의 어로자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편리한 어로 방식을 포기하더라도 그들의 자원에 대한 권리를 지속시키고 소득이 적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일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생태적 측면에서 해양 동·식물의 지속적 재생산을 도모하므로(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어로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 2) 물질의 경제적 가치

제주도 해안마을마다 있는 어촌계의 잠수회는 “물때”에 맞추어 입어

하는 날짜가 정해지며 대개는 한 달에 2회, 약 보름간 물질한다. 김녕리의 잠수들은 모두가 한곳에 모여 옷을 갈아입은 후 어촌계장의 지시(협이라 해도 다르지 않다)에 따라 바다로 향한다. 이들이 잡는 것은 소라, 전복, 오분자기 외에도 문어, 성게, 해삼을 잡으며 작살에 능숙한 잠수들은 돛이나 복어를 잡아 오기도 하였다. 평균 하루 작업시간은 3시간 내지 5시간에 이른다. 먼 바다로 이동해야 하는 중·상군의 경우는 잠수회가 운영하는 작업 배(“관리선”)를 이용하며, 수심 얇은 곳에서 일하는 하군들은 어촌계 간사의 트럭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각자가 잡은 해산물들을 가지고 돌아온 작업장 안에서 계량을 한 후 잠수는 “전표”를 받게 된다. 이것이 그녀가 하루 작업한 결과이다. 이 전표에 기록된 무게에 근거하여 약 1주일 후에 어촌계에서 현금을 지급하였다.

잠수들은 물질 외에도 농사를 병행하고 있다. 마늘과 양파를 수확하는 6월은 우뚝가사리(천초)도 수확하기 때문에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물질을 잘 하는 것과 함께 농사 일정도 잘 조율해가며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잠수에게는 중요하다. 물질을 하지 않는 여름 한철(3개월)은 잠수들에게 비교적 한가한 시기이다. 소라가 산란기를 맞은 7월부터 9월까지 소라의 법정 금채기(禁採期)였으나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2007년부터는 6월부터 8월까지로 바뀌었다. 그러나 김녕리 잠수들은 법정 금채기와 달리 항상 4개월 동안 마을어장에서의 입어를 자체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잠수회원들은 6월부터 9월까지 마을어장에서의 물질을 금지하여 10월에 소라 채취(“대조문”)를 시작하여 왔고 이는 2007년에도 바뀌지 않았다. 소라 잡이 시기를 축소하여 채취량이 감소하지만 반면 소라의 번식을 피하여 더 큰 소라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170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표 1〉 어로와 농사의 연간 주기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다음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초	▶ 조합장 선출 조합별 바다 바꾸기 천초 출하 및 결산						▶ 뚝 채취 ---- 출하 ▶ 천초 채취 ▶ 조합별 회의					
패류, 그 외	▶ 소라금채기 -----▶ 소라채취 -----▶ 소라금채						▶ ---- 전복 금채기 --▶ 전복 채취 -----					
	▶ 입어 금지 기간 -----▶ 물질 시작 -----											
농사	▶ 여름농사(녹두, 참깨)			▶ 꿀 수확								
	▶ 마늘, 양파 파종 -----▶ 물, 비료주기 -----▶ 마늘종꺾기						▶ 마늘, 양파 수확					

여름 한철 금채기 동안에 마을어장에서는 고장초(해초)를 채취하는 일 외에 모든 입어를 금지한다. 이처럼 잠수들의 작업 시기는 소라의 생태적 서식과 관련이 있다. 이는 제주도 잠수들이 채취하는 주요 시장 상품이 소라이기 때문이다. 소라는 1970년대부터 일본으로 수출의 길이 열리면서 잠수들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왔다.<sup>29)</sup> 김녕리 마을 잠수들의 최근 3년간 어획량과 생산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29) 학명으로는 *Batillus cornutus*. 우리나라 동·서해안에서 어획되는 피빨고둥과는 다른 종이다. 조간대로부터 수심 20미터 사이의 암초에 서식하고 남해안과 울릉도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분포하지만 주로 제주도에 분포한다. 과도한 어획으로 말미암아 1991년 10월부터는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자율적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자원관리 대상이 된 해산물이기도 하다(장대수, 2002, 〈제주도 산 소라, *Batillus cornutus*의 자원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쪽).

〈표 2〉 김녕어촌계의 해산물 어획량과 생산금액

(단위: t/천원)

구 분	소라	전복	오분 자기	해삼	문어	성게	툃	우뭇가 사리	합계*	
2004	물량	82,232	8	883	446	1,073	314	15,643	50,300	150,899
	금액	480,013	831	28,992	6,216	5,759	12,105	53,046	181,545	768,507
2005	물량	75,052	10.20	385.25	445.05	678.9	159.3	27,201	72,990	176,922
	금액	330,191	1,238	12,921	7,027	3,394	5,718	73,449	283,322	717,260
2006	물량	78,522	12.55	88.30	299.35	823.30	254.6	7,841	52,710	140,551.1
	금액	321,940	1,315	2,817	3,592	4,132	9,387	20,383	406,284	769,850

\* 감태와 갈래곰보 등의 채취는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2005년, 2007년 제주시수협 제 공자료에서 재작성(금액에서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함).

마을어장에서 어획되는 해산물들 가운데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소라임을 알 수 있다. 소라의 생산금액은 줄곧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우뭇가사리의 가격 상승에 따라 소라가 2위를 차지하였다. 잠수들의 어로를 통한 경제적 소득을 그들의 농사 소득과 비교해 보면 물질은 여전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로활동이다.

또한, 잠수들의 물질은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가구를 통한 소득 분배의 효과가 있다. 이들에 의한 어로소득이 곧 마을주민의 가구소득으로 전환되고 있다. 개별적 소득은 적으나 여러 가구의 소득으로 분산되는 이점이 있다. 만약 기계기술에 의존한 어로방식이 도입된다면 소수의 어로자들에 의한 어로가 이루어질 것이다. 2005년 김녕리 어촌계원은 640명이며 그 가운데 160명이 잠수들(모두 40대 후반부터 80대까지)이다. 잠수들 가운데 상시적으로 입어하는 110 명가량을 대상으로 연평균 어로소득을 추산해 볼 수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3백 30여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여기에 해초 채취를 통한 소득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원(640명)으로 분배받는 평균 약 60만원의 해초 소득을 감안할 때, 잠수 가구의 연 평균 소득은 400만 원 가량이 된다. 그러나 이 금액은 평균소득이며, 중·상군이면서 해초채취를 도

## 172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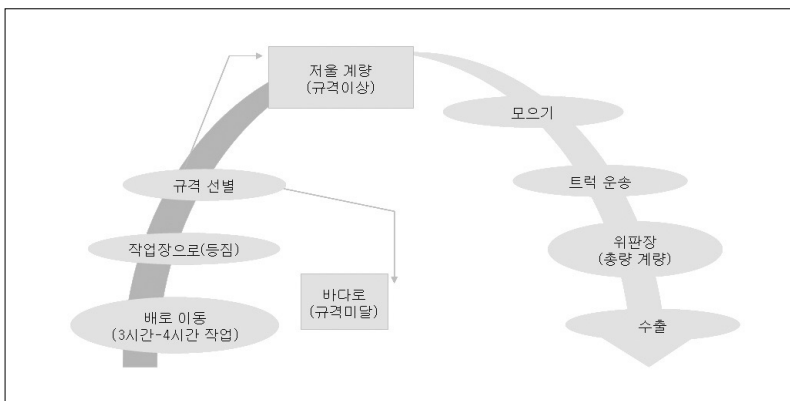
맡아서한 경우라면 그녀가 분배받을 수 있는 몫은 더욱 커진다.<sup>30)</sup> 2005년 김녕리 농협 자료에 따르면 마늘과 양파의 가구당 평균소득에 비교하여 잠수 1인의 어로소득은 약 2배가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물질은 경제적 고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어로활동이다. 때문에 보다 높은 생산성을 지향하려는 전략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잠수들이 스쿠버다이빙으로 바뀌지 않는 까닭은 우선, 고령의 여성들이 새로운 어법을 배우는데 있어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르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동료잠수들 가운데 고령 잠수들의 탈락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나잠어로 방식을 한다는 것은 이들이 무지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적합한 어로방식으로서 자리 잡아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은 소수가 많이 벌기보다 다수가 적게 버는 방식으로 연안자원이 분배되는 메커니즘을 유지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잠수가 스쿠버다이빙처럼 일을 하게 된다면 그녀는 더 많은 양의 해산물을 채취하여 소득을 많이 얻을 것이나 반면 그녀는 동료를 잃고 건강은 더욱 악화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마을주민으로서 살아가므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 존재한다. 외부적 변동요인이 없는 바에야 자체적으로 어로 방식을 바꾸며 마을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킬 까닭이 없다. 욕심 많은 한 잠수가 혼자서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을 만들어 물질을 하지 않는 것은 바다의 위험성도 있지만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집단적 공동어로의 관행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30) 이 소득은 묻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며 마을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밀이 되고 있다. 이듬해 조합 내 해초입찰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3) 소라의 시장 출하

잠수들의 채취한 소라뿐만 아니라 해초들도 거의 모두가 일본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국내 시장과 다른 해외시장에 대한 판로가 부재한 상황에서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엔화의 하락은 수출의 부진에 이어 곧바로 잠수가구의 소득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해산물의 시장가격 하락은 연간 가구소득에 큰 기복을 만들었다. 이러한 시장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 중의 하나는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으로써 채취하는 해산물의 크기를 높이는 것이었다. 2007년 출하 가능한 소라의 크기는 7cm에서 8cm으로 커졌다. 규격 이하의 소라 유통을 규제하는 것은 어자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유통물량을 조절하는 간접 기능을 하는 것이다. 시장변동에 대응하는 손쉬운 수단인 셈이다. 대신에 큰 소라를 잡을 수 없는 고령의 잠수들에게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국내 시판은 요원한 상태이며 그 사이의 잠수들은 다른 일당벌이에 나서고 있다. 마을의 어촌계장은 국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소라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적 노력에 그치고 말았다.



〈그림 2〉 소라의 유통 과정

〈그림 2〉는 소라가 채취된 이후 시장에 유통되기까지의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라의 무게는 자연 줄어들 수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감량비율은 전체 물량의 약 1.4%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자연 감량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빨리 위판장으로 소라를 실어 나르는 것이 중요하다. 채취에서 운송까지 전 과정은 잠수회가 자치적으로 운영하였다. 작업장에서 선별된 소라는 인근에 있는 수협 위판장을 거쳐 수출하게 된다. 따라서 잠수들의 작업장 안에서 저울로 계량하는 것은 곧 바다에서 잡은 자연 해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때 잠수들은 그녀의 하루 노동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곤 하였다. 소라 1kg의 가격이 4100원이었을 때 10kg을 잡아야 그녀가 다른 발일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동임금과 같아진다. 그러나 소라 10kg은 만만치 않은 무게이다. 따라서 하군들 가운데에는 소라를 잡는 대신 성게와 오분자기를 잡는 것으로 소득을 유지하려고 하고, 혹은 물질을 포기하고 다른 발일의 일당별이에 나섰다.

그동안 제주도의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소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3〉을 통해 최근 6년 사이 소라는 20%가량 비중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소라의 가격하락이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국내시장 변화가 제주도 잠수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 과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잠수들에 의한 마을어업의 비중은 점차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녕리 마을 잠수회는 매년 어장자원을 보호하는 자치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소라를 보호하는 자율적 감시활동이었다.



〈표 3〉 제주도 수산물 수출에서 소라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천\$)

연도별 품목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활선어	19,312	23,121	24,543	34,311	39,954	49,771	42,461
패	13,686	10,317	11,597	9,927	10,532	8,245	7,163
류	13,478	10,134	11,427	9,629	10,336	7,495	6,791
소라(A)	5,196	4,774	3,688	4,224	3,674	3,966	4,808
해조류	68	17	-	794	4	10	88
기타	38,262	38,229	39,828	48,463	54,164	61,992	54,524
합계(B)	35.22	26.51	28.69	19.86	18.40	12.09	12.4
소라 비중 (A/B, %)							

\* 제주도 해양수산과에서 발행한 <해양수산현황>(2005년, 2007년) 을 토대로 재작성.

\*\* 2001년 자료는 제주도청 사이트(www.jeu.go.kr)<2006 주요행정 총람> 통계자료 참조.

#### 4) 여장자원의 보호와 감시

소라는 잠수들의 주요한 시장상품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한 조직적 여장감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잠수회는 자율적으로 당변을 만들어 여름 내내 전회원이 돌아가며 해안가의 소라가 잘 번식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사례가 “바다를 지키는” 일과 “소라를 옮기는” 일이다. 두 가지 일은 잠수회의 “공동일”로서 모든 잠수들이 참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2005년 한 여름, 마을 안에 있는 백사장에 해수욕객들이 붐빌 무렵이면 잠수회에서는 조를 편성하여 바다를 지키러 다녔다. 이 시기가 되면 바닷가 검은 현무암의 송송 뚫린 구멍과 바위틈에서 어린 소라가 자란다. 간조 때 물이 빠진 바위 구멍들마다 가득히 자리 잡은 어린 소라들을 볼 수 있다. 이때에 맞추어 잠수들은 발일을 하면서도 매번 물때마다 “바당(바다를) 지키러” 다녔다. 서너 명씩 짝을 지어 갯바위 위에 천막을 치고는 소라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해수욕객과 낚시꾼들의 행동

을 지켜보는 것이다.

‘바다를 지키다’ 것은 마을 잠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잠수들은 소리를 번식시켜야 생계를 보전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여 몰래 소리를 잡아가려는 ‘아는 사람’ 들과의 불란(不亂)을 만들지는 않았다. 2005년 7월 31일, 바다를 지키는 동안 여러 명의 남자들이 소리를 채취하여 잠수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 남자들 가운데에는 남편의 동창이거나 먼 친척인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잠수들로 하여금 법과 마을사람과의 관계 중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난감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으며 소라로 인하여 그들의 사회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바다를 지키는 일은 생산토대인 연안바다가 황폐화되지 않고 그들의 지속적인 ‘바다의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마을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바다를 지키는’ 과정에서 잠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라에 대한 권리를 사회적으로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도 보호한 자원에 대한 채취 권리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었다. 진해는 연구자에게 “오늘 하루 바다를 지켰으니 소라를 잡아도 된다”고 하였다.<sup>31)</sup> 소라를 지킴으로써 채취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지키는 것과 같이, 마을어장에 어린 전복(“전복씨”)을 방류하는데 있어서 하군들보다 중·상군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소라를 보호하는 일은 어린 소라들을 바다 멀리 보내버리는 일이다. 2005년 8월 20일, 잠수회원들은 갯바위 구멍에서 자

31) 연구자는 당시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있었지만 채취 권리는 없었다. 처음부터 잠수회는 연구자가 소라를 잡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물질을 허락했었다.

라고 있는 어린 소리들을 바다 멀리 던지는 일을 하였다. 바다 속에서 '물질해야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잠수회에서는 어장감시원을 고용하여 매일 해안가를 순찰하며 스쿠버다이버나 불법적 해산물 채취가 일어나는 것을 감시하였다. 이 역시 어촌계와 무관히 잠수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이었다.

소라의 자원 고갈과 남획을 방지하는 잠수회의 공동일은 인간이 자원과 공생하기 위해 벌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소라가 있음으로써 잠수 가계의 유지가 도모되고 잠수에 의해 소라는 무분별한 남획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물질이라는 어로방식을 통해서만 마을어장에 입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잠수들의 특정 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자원의 생태적 측면에서 볼 때 물질은 지속적 자원 재생산의 수단이 되는 유용한 측면이 있다. 잠수회는 공동일에 불참한 자를 기록하여 후에 "벌비(벌금)"를 내도록 하였다. 공동일로 이득을 보는 무임승차자(無賃乘車者)를 견제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 4. 해초의 공동 채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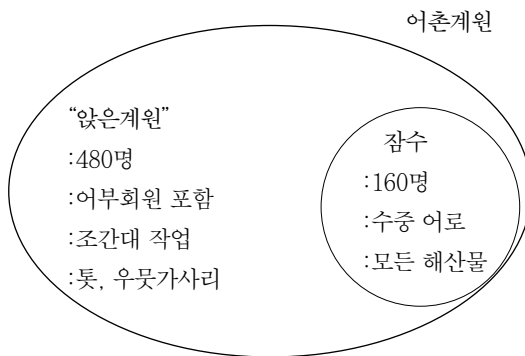
### 1) 계원의 구분

김녕리는 마을어장의 해안구역을 8개로 분할하여 8개 동네가 각각 해초채취의 전 과정을 운영하였다. 매년 7월이 되면 8개의 해안구역을 동네별로 차례대로 바꾸는데, 각 동의 어촌계원들은 자신들이 맡은 구역에서 자라는 해초에 대해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한 동네가 한 조합(組合)이 되어 해초를 채취, 건조, 출하하며, 결산이 끝난 7월에

178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해안구역을 바꾸는 것이다(“바당 바꾼다”).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를 한 해(年)로 간주하므로 해초의 수확이 한 해의 시작과 끝의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채취하는 해초는 툇과 우뭇가사리이지만 이렇게 할당된 해안구역의 바다를 “우미(우뭇가사리)바당”이라 불렀다. 동네별 우미바당은 오로지 동네 계원들만이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혹 태풍이나 강풍에 올라온 해초(“풍초”)가 있다하더라도 그 지역 우미바당 계원들만이 건조, 출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풍초 외에 각 우미바당에서 채취한 해초는 각 동네별 어촌계원들에게 공동분배 되었다.

마을사람들은 어촌계원 가운데에서도 물질하지 않는 비잠수자(非潛水者)들을 가리켜 “얹은계원”이라 불렀다. ‘얹아서’ 일하는 계원이라는 뜻으로 바다에서 자맥질하는 잠수들의 노동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촌계원을 구분하고 있는 이 호칭은 해초채취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채취작업에 참여하는 노동의 형태에 따라 그들 사이의 분배 몫도 달라졌다. 곧 육체적 노동 강도가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어촌계원의 구분

〈그림 3〉에서 보듯이 앓은계원과 잠수는 마을어장의 자원에 대한 권리가 서로 다르다. 해초는 모든 계원이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자맥질하여 잡는 다른 해산물들에 대해서는 잠수들만이 전용권(專用權)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마을어장의 해양자원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수들이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권리의 차이를 만드는 어촌계원들 사이의 구분은 물질에 달려 있다. 모두의 '공동어장'이라 할지라도 앓은계원은 자신이 노동을 하지 않음으로써(혹은 못함으로써) 소라나 전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신의 노동으로 바다 속 자원에 접근이 가능한 자에게 자원 권리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의 우뭇가사리 채취작업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조합별 채취 방식

김녕리는 매년 2월말 경부터 3월 사이 툇을 채취하고, 5월말부터 6월에는 우뭇가사리를 채취하였다. 두 번의 해초 채취작업은 모두 동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었다. 제주도내의 각 해안마을마다 해초의 채취방식은 다양하여 가구별로 능력만큼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김녕리는 공동작업하여 공동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대원칙에 준하여 각 동은 동네 잠수들에게 채취작업을 일임하기도 하



〈사진 2〉 S동의 조합회의(2006.4.27)  
(오른쪽: 잠수들, 왼쪽: 앓은계원들)

## 180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였다. 모든 계원이 채취와 출하까지 함께 하는 방식을 “공동으로” 한다고 말하며, 동네 잠수들에게 위임하는 경우를 “잠수들 맡아서” 하는 것이라 말한다.

각 동(조합)은 채취에 앞서 조합회의를 개최하여 채취방식을 결정하였다. 우뭇가사리는 조간대와 바다 속 두 군데에서 채취가 가능한 해초이다. 때문에 채취에 참여하는 계원들 사이에 노동 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우뭇가사리의 질 또한 차이가 나는데 바다 속에서 물질하여 채취한 것이 조간대에 앉아서 채취한 것보다 훨씬 좋다. 조합회의는 먼저 공동으로 할 것인지 잠수에게 위임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공동으로 한다면 작업시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얹은계원과 잠수 사이의 참여 범위와 작업일수를 정해야 하였다. 잠수들은 얹은계원에 비하여 노동 강도가 크므로 건조에 참여하는 것을 생략시켜 준다거나 작업일수를 축소시켜주었다.

반면 동네 잠수들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과정 없이 잠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였다. 작업일정과 시간조절, 건조와 출하까지의 전 과정을 잠수팀이 주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잠수들의 노동 강도는 최고조에 이르지만 소득정도도 그만큼 높아진다. 해초가 많은 좋은 우미바당이라면 잠수들은 이 방식을 선호하였다. 잠수팀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조합에 내고 그 금액은 전 조합원(잠수포함)에게 공동분배 되었다. 그 외 해초 소득은 채취한 잠수팀원들 사이에서 공동분배 하였다. 일정금액이란 기존 관행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잠수들에게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 조합에게 제공되는 35%는 잠수들에게도 분배되는데 이는 해초 주인에 대한 몫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나머지 65%는 오로지 노동에 대한 대가이다.<sup>32)</sup> <표 4>는 김녕리 8개

32) <표 4>에서 “녕개” 지역의 Y동 조합의 경우 다양한 인적 구성을 나타내는

〈표 4〉 2005년 우뭇가사리 채취와 분배 방식

어장 구역 이름	동(조합)	채취방식	분배방식 (조합:잡수팀)
(1) 한여	S동	잡수팀	3.5:6.5
(2) 덩개	Y동	계원 4인(Y동 3인, S동 1인) (Y동잡수 4인, B동잡수 18명)	?
(3) 가수	Dc동	잡수팀	3.5:6.5
(4) 이알	H동	잡수팀	"
(5) 소여	N동	잡수팀	"
(6) 한개	Ds동	잡수팀	"
(7) 손오비	C동	공동	공동분배
(8) 수어새	B동	공동	공동분배

동네별로 이루어진 우뭇가사리 채취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S동의 잡수팀은 채취에서 출하까지 19명의 잡수들이 공동으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채취에서 출하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한 잡수들 사이에서도 노동의 질적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물질의 기량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 같은 몫을 분배받았다. 연구자가 참여하였던 S동 작업에는 거의 매일 잡수들이 집에서 만든 음식이 들어오거나 잡수의 남편이 와서 일을 거들기도 하였다. 그 잡수들은 고흥이나 다른 조합에 소속된 잡수들이었다. 그들은 음식의 증여나 가족의 부가적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의 질적 차이를 상쇄시키고 S동 작업에 참여시켜 준 고마움 - 엄밀히 말하면 분배 몫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데에 대한 고마움 - 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권리가 같다면 노동의 질이 같아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였을 때 부가적인 방법으로 기여함으로써 자원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획득해 가는 것이다.

것은 이 동네 잡수가 극소수로서 채취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은 반면 해초의 양은 많고 질 또한 우수하여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투영되었기 때문이었다.

182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사진 3〉 잠수들의 우뭇가사리 건조 작업(2005.5.25.)

### 3) 협력과 분업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는 발작물의 수확기가 겹치므로 잠수들에게는 바쁜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농사와 어로의 조율이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 잠수의 물질은 생활세계의 일부로서 다른 노동과의 연관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동이다. 그러므로 농사와 어로, 가사노동 등 그녀가 어떻게 많은 노동을 해결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잠수들이 이중적 노동 사이클을 조율해 가는데 있어서 가족의 협력과 분업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 양상을 보도록 하겠다.

#### (1) 남편과 친정어머니

2005년 5월 29일, S동 잠수들이 오전 10시부터 해수욕장 너른 아스



팔트 위에서 건조한 해초들을 자루에 담기 시작하였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희진(50세, 중군)에게 그녀의 보리밭에 보리가 익었더라고 전해주었다. 그 사람은 옆 밭의 주인이었다. 보리를 수확하려면 베고, 말리고, 담는 일이 이어져야 했다. 그사이 비라도 오게 된다면 보리 말리기가 힘들어지고 애써 한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희진은 우뭇가사리 작업에 빠질 수도 없을뿐더러 - 만약 빠진다면 하루 일당보다 조금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했다 - 보리를 수확하는 일을 미룰 수도 없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였고 1시간도 채 안되어 남편은 타작 기계를 빌어서 보리밭으로 갔다. 3시간 후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트럭에다 보리가마니를 싣고는 해수욕장으로 왔다. 우뭇가사리를 담는 일이 거의 마무리 될 때였다. 담는 일이 끝나자 일부 잠수들은 제각기 마늘밭으로 흩어졌고 또 몇몇은 희진과 함께 보리 너는 것을 도와주었다. 해수욕장의 너른 주차장은 보리 건조에도 좋은 곳이었다. 날씨도 쾌청하여 하룻밤이면 보리도 마를 것이다. 이렇게 삼시간에 그녀는 보리 수확을 끝마칠 수 있었다.

남편이 있다는 것은 단지 한사람의 노동이 추가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였다. 희진의 경우처럼 작업의 속도뿐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수확함으로써 농사의 성패까지 좌우되는 것이다. 남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남편이 없고 자식들도 도시로 나가 살고 있는 일순(63세, 중군, B동)과 지순(57세, 상군, C동) 자매는 항상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희진보다 남편이 없는 일순과 지순이 항상 더 바빴다. 희진은 남편의 트럭을 타거나 걸어서 밭을 다녔고 일순과 지순은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무엇보다도 친정어머니가 남편을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남편은 마을 안에서 생기는 각종 경조사에 그녀를 대신하여 참여해 줄 수 있다. 마을의 이웃주민과 친척 집의 경조사 등 “돌아볼 일”은 빼놓을 수

없는 도덕적 의무이다. 이렇게 돌아보는 일을 남녀 모두에게 의무이나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남편만 참여하여도 무방하였다. 이렇게 남편이 있는 잠수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노동 일정을 여유 있게 진행시켜 갈 수 있는 것이다. 남편의 의례 참석과 부인의 노동이라는 역할 분업이 모녀 간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남편의 직업과 관계없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의 존재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할 수 없는, 혹은 직장 다니는 아들과 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었다.

경제적으로 남편의 부재는 비용의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많다. 농사와 어로를 병행하므로 수확기에 잠수는 하루 이틀정도 공동어로에 불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궤비(불참에 따른 벌금)”가 되어 그녀의 분배 몫을 작아지게 하기 때문이다. 지순은 채취기간 동안 집안의 혼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을 다녀왔고, 아들과 함께 마늘밭에 농약을 쳐야 했다. 때문에 그녀는 우뭇가사리 채취작업을 벌인 다른 조합의 잠수팀 참여에서 상대적으로 궤비가 적은 Y조합의 작업에 참여하였다.

## (2) 가족의 공동일

난희(48세, 하군)는 잠수들 중에서도 사촌 연미(48세, 중군)와 함께 가장 어린 잠수였다. 그녀는 작업장에서 커피를 타거나 싱크대를 정리하는 등 누군가가 해야 하지만 의무가 없는 일들을 언제나 도맡아서 하였다. 그녀는 하군 잠수이지만 오분자기와 성계만큼은 제일 잘 하여 “오분작 상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가 잠수들이 잡아온 “물건”들을 저울로 재고 있을 때 특별히 그녀가 잡은 오분자기나 성계만을 골라서 팔아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제주시에 있는 회사에 다녀 농사를 거들 수 없었고 두 아들은 군인과 학생이었다. 그녀의 일을 거들어 준 사람은 시어머니였으나 최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전히 그녀 혼자서 밭일을 떠맡고 있었다. 마늘밭 1400평

과 양과밭 900평을 경작하였다. 밭에 갈 때나 바다에 갈 때 그리고 다른 집에 놀러갈 때도 그녀는 언제나 분홍색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바쁜 그녀에게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해내느냐고 물었었다. 그녀는 생글거리며 “집안일은 공동일!”이라고 가족들에게 주장한다고 하였다. 남편과 아들들에게 집 밖에서는 각자의 일을 하지만 집 안에서는 서로가 함께 살아가므로 공동일이라는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 밭일과 물질은 ‘바깥일’이며 가사노동은 가족들 모두의 공동 의무라는 논리이다. 2006년 마늘 수확기에 밭에서 만난 그녀는 어스름까지 자신의 마늘밭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밭 가까이에 있는 그녀의 친정어머니(선영, 70세, 중군)가 또한 마늘을 수확하면서 서로의 일을 거들어 주었다.

### (3) 딸들의 밭일

한 마을 안에 살고 있는 딸들과 물질을 함께하면서 딸의 농사도 보살피는 친정어머니들이 있다. 중군잠수 선영과 창호할머니(82세, 당시 최고령 잠수)가 대표적인 예다. 중군잠수 선영은 함께 사는 아들의 밭일을 거들면서 딸 난희의 밭일을 거들었다. 창호할머니는 고령이지만 큰 딸, 작은 딸과 함께 물질도 하고 두 딸의 마늘과 양과 밭을 번갈아 가며 일을 거들었다. 자신이 물질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딸들의 밭을 돌아보고 작물의 상황을 전달해 주고 언제쯤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조언 하였다.

딸이 여럿일 경우 밭일을 거드는 친정어머니는 딸들 간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세 딸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기연할머니는 큰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농번기에는 딸들의 밭일을 도왔다. 기연할머니는 고무잠수복으로 작업복이 바뀌던 1970년대 초반에 물질을 그만 둔 잠수였었다. 그녀는 큰딸을 시작으로 막내딸까지 골고루 돌아가며 밭일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하던 다른 마을의 밭일 다니는 것도 딸들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하지 않았다. 게다가 창호할머니와 기연할머

186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나는 바람에 밀려 온 풍초를 주우러 다니는 일에도 열성이었다. 풍초는 틈틈이 할 수 있는 일로서 고령의 여성들에게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었다.

밭일을 거드는 것은 단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기연할머니는 여러 밭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딸들이 겨울철 당근 밭일을 가게 되었을 때 여기에 필요한 신발과 장갑 등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복장만이 아니라, 어떻게 당근을 파야 하는 지에 대한 일의 정확성과 속도 등을 딸들에게 알려주었다. 나이든 친정어머니와 한 마을에 같이 산다는 것은 잠수들에게 큰 도움인 것이 분명하다. 딸들의 친정어머니들은 동시에 자신이 시어머니의 위치에 있으므로 아들의 밭일(곧 며느리의 일)을 함께 거들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풍초 줍기까지 고령의 여성 노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어로와 농사를 병행하는 잠수들의 생활은 고령 여성의 노동 협력과 더불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 5. 자원에 대한 사회적 권리

역사적으로 연안 바다는 마을주민들에 의해 ‘우리 바다’라는 관념이 존재하여 왔으며,<sup>33)</sup> 사유와 공유[촌유]형태로 지배되어 왔었다.<sup>34)</sup> 1962년 어촌계가 공식적으로 성립되기 이전부터 제주도의 연안 바다는 잠수들의 오래된 어로공간이었다. 그리고 잠수들은 그들만의 사회 조직을 구성해 왔다. 잠수회는 행정적으로 공식적 조직은 아니지만 마

33) 한규설, 1993, 『공동어장과 어촌』, 참한.

34) 朴九秉, 1991, “漁業權制度と沿岸漁場所有利用形態,” 『日韓漁村の比較研究』, 行路社, 223~230쪽.

을 안에서는 공식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여성의 자치 조직이다. 지금도 마을어장을 이용하고 자원을 관리 감독하는 실질적 주체는 잠수회원들 이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잠수회의 자원관리, 감시 활동은 법령이 정한 의 무규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잠수회의 독자적 활동 이 용인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물질에 의해 해산물이 채취되어온 역사가 있으며, 오래된 마을주민의 의례인(“잠수굿”)에서 바다가 잠수 들의 영역이라는 강한 상징성을 담고 있는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2) 신화와 자원 권리<sup>36)</sup>

김녕리 두 잠수회는 각각 그들이 작업하는 해안바닷가에서 해신제 (海神祭)를 올리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래된 의례를 동쪽 잠수회는 마을의 심방(무당)을, 서쪽 잠수회는 스님을 모 시고 제를 올린다. 일제시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굿이 탄압을 받게 되자 서쪽 잠수들은 인근 사찰의 불교양식을 혼합시켰고, 동쪽 잠수들은 일 시적 중단 후 해양 사고가 나자 은밀하게 지속시켜 왔다고 한다. 표면 적으로 형식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두 해신제는 같은 날, 그들의 작업하는 바닷가에서, 씨를 뿌리고, 바다에 “지(한지에 음식을 포장한 것)”를 드리는 등 의례과정이 비슷하며 내용에 있어서 동일한 해신제라고 여겨진다.

동쪽 잠수들의 굿을 중심으로 하여 말하자면, 잠수들은 바다 속을 “요왕할망(女神)”의 세계로 관념하고 있다. 그들이 채취하는 해산물들

35) 김영돈, 김두희, 1982, “해녀어장분류조사연구, 해녀어업관행의 실태와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논문집』 제14집, 23쪽.

36) 이 굿에 관련한 내용은 본 연구자의 2006년 『한국문인류학』 제39집 2호 (307~347쪽)에 소개한 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의례과정에서 상징으로 등장하는 신화적 관계의 사회적 권리 측면을 초점에 두었다.

도 여신이 주는 것이며, 그 여신에게 정성을 바치려고 “잠수굿”을 하는 것이라 한다. 이 굿을 위해 잠수들은 하룻동안 채취한 소리와 문어, 전복, 성게 등을 제물로 준비하였다. 제일은 음력 3월 8일로 이 날은 “요왕문이 열린” 날로 바닷가에서 이 굿을 하는 것이다. 이 굿은 잠수들이 준비하고 잠수들의 한해 동안 무사안녕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이 굿에 참여하였던 연구자는 이 의례가 비단 잠수들만의 굿이 아니라, 다양한 내방객들이 참여하는 의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의 유지들로부터 지방 정치인(도의원과 국회의원), 수산기관의 직원과 수산업 공무원 등 마을 안팎의 여러 남성들이 매년 방문하였다. 이에 비해 잠수 외의 마을부녀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른 새벽부터 굿의 시작을 알리는 〈초감제〉가 오전 내내 이어지다가 점심을 먹은 후 오후에는 〈요왕맞이〉, 〈씨드립〉, 〈씨짐〉등의 제차가 이어진다. 초감제에는 제주도 여러 신들의 “본풀이[신화]”가 심방을 통해 구송되었다. 마을 안에는 여러 마을당들이 있는데 이곳에 “좌정하였다”는 당신(堂神)들뿐만 아니라 만신(萬神)들을 모셔 와 대접하며, 특별히 바다를 향한 굿에 “요왕상”을 차린다. 요왕맞이는 잠수들이 요왕 할망의 자손이라는 신화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의례과정이다. 신을 맞이하기 위한 길닦기(“요왕질치기”)를 연행하며, 끝난 후에는 바다에다 “지”를 드렸다. 신에 대한 음식 공양이다. 심방은 잠수들을 향해 조상(신)의 입장에서 잠수들이 물질하는 몸의 괴로움과 가족에 대한 헌신, 바다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애환 등을 줄줄 풀어낸다. 이 때 말하는 심방도 잠수도 눈물짓곤 하였다. 이 과정은 잠수가 불쌍하거나 못살아서 물질하는 사람이라는 등 그들 밖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인식들로부터 위로 받는 유일한 순간이라 여겨진다. 의례의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에서도 이 과정을 통하여 잠수는 자신의 아이

덴티티를 재확인·재강화 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겪는 소외감을 해소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 후 잘 달리는 두 잠수가 바닷가를 동서로 뛰어다니며 빠르게 씨를 뿌리는 데 이를 씨드림이라 부른다. 뿌려진 씨앗들은 모두 자라서 해산물이 된다는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잠수들이 씨 뿌리는 두 잠수를 응원하며 환호하였다. 씨드림이라는 상징적인 파종행위는 뿌린 자가 거둬들인다는 면에서 잠수들이 마을어장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실천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 잠수들이 바다 속 여신의 자손이라는 신화적 관계는 잠수들의 연안어로 활동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강력한 상징이라 본다. 마을어장은 국가로부터 임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어촌계가 우선적 권리를 가지고 어로를 행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잠수들이 특정 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법적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만 이해할 수 없다. 마을어장에서 입어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비공식적 조건이 더욱 강력하고, 더욱이 입어를 여성만이 할 수 있다는 법적 성별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신화적 조상-자손의 관계가 의례에 참여한 수산업 관계자와 정치인들에게 상징하는 메시지를 잠수들의 어로행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씨앗을 뿌림으로써 연안 바다가 그들의 어로공간이며 영역임을 의미하고, 그곳의 해산물에 대한 권리도 그들에게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sup>37)</sup> 더군다나 정성을 들이기 위해 모신 그들의 조상신인 요왕할망은 바다 속에 있다고 관념하는 여신이다. 곧 해저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잠수들이야말로 여신의 자손이라는 논리가 형성된다. 요왕할망과 잠수는 자연생태와 어로행위의 특성이 신화적 상상

37) 안미정, 2006, “바다밭(海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전통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제39집 2호, 339쪽.

## 190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력 속에 조상-자손이라는 친족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의 신화적 생명력은 사회적으로 잠수들의 영역권과 자원 권리가 자손인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잠수국은 해양 수렵채집어로자인 잠수들이 바다로부터 얻은 경제적 소득(자원 약탈)에 대한 도덕적 의무(약탈자의 보상)가 잠수 사회에 체제화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의례이기도 하다. 굿에서 나타나는 “지드림”은 어로의 무사안녕과 자신이 가져온 것(혹은 가져올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 증여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바다의 여신과의 친족 관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신화적 사고는 바다를 바라보는 잠수들의 해양관과 더불어 그들의 해저 세계, 곧 바다밭에 대한 주체적 권리를 상징하고 사회적으로는 마을어장/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6. 뱃음말

한국 어촌여성의 대표적인 연안 어로로서 제주도 잠수들의 공동어로인 물질과 해초 채취 사례를 살펴보았다. 잠수들의 물질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해안여성들의 생계활동이며 이들이 채취하는 주요 해양자원은 일본 수산물시장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인 여성생업활동으로 주목받아 온 잠수들의 물질을 연구자는 해양자원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기계적 기술방식의 도입보다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수중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적응해서가 아니라 자원을 지속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고수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잠수들은 어촌계라는 공식적 조직의 하부단위로 그들만의 사회



조직을 구성하여 집단적인 어로와 해양자원의 보호, 감독활동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등 마을어장의 실질적 관리주체라 할 수 있다. 물질은 개별적으로는 바다와 해양 동식물의 생태에 대한 총체적 지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로로서 오랜 경험과 숙련 과정을 통해 기량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입어하는 관행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상호보호막 구실을 할 수 있어서이기도 하다. 동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함께 조력하는 생활의 연대자로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연대의식에 의하여 새로운 어로기술의 도입도 방지될 수 있다. 개별적인 채취경쟁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어로 관행이 지켜지고 상호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을어장의 자원에 대한 권리도 서로 물질을 함으로써 지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초 채취과정을 통해서 마을주민들 사이의 협동적 공동어로가 자원의 질과 권리의 질을 공평히 하려는 방안들이 모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초 어장을 매년 순회하는 규칙과 채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노동의 질적 차이를 상쇄시키려는 부수적인 노력들이 있었다. 어장을 공유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주민들의 개별적 자원 권리가 서로 동등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공동체적 협업양상은 주체들이 가진 자원 권리의 질이 상호 공평해지도록 하며, 그 권리는 자신의 노동을 통한 참여로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는 "공동권리"가 달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공동어로는 서로가 공유하는 것을 사유화하는 과정이며, 생태적 해양자원을 사회적 권리로 탈바꿈시키고, 각자의 노동으로 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문에 제시한 두 가지 사례에서 잠수들은 다른 어촌계원들과 구분되는 역할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수중 깊이 자택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잠수들의 물질

## 192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은 특정의 자원에 있어서 다른 상대와 구별되는 자원 접근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잠수들은 특정 해양생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자원과 공생 관계에 있다. '공유지의 비극'을 쉽사리 초래하지 않는 (혹은 더디게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상호의존적인 공생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적 조직인 잠수회의 어장 자원에 대한 공식적 활동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집단적 의례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잠수굿"은 연안 바다가 잠수들의 영역이며 바다밭의 주체적 권리가 그들에게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의례이다.



## 참고문헌

- 구좌읍, 2000, 『舊左邑誌』, 제주: 태화인쇄사.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3, 〈海女-물에꾼들의 삶과 문화〉.
- 국립해양조사원, 2005, 〈어업정보도: 제주도 부근〉.
- 김 승, 1999, 『漁村漁業制度의 社會經濟的 調査研究』, 서울: 향하사.
- 김 준, 2004, 『어촌사회변동과 해양생태』, 서울: 민속원.
- 김영돈, 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 제주문화.
- \_\_\_\_\_, 1999, 『한국의 해녀』, 서울: 민속원.
- 김영돈, 김두희, 1982, “해녀어장분규조사연구, 해녀입어관행의 실태와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논문집』 제14집, 15~36쪽.
- 데이비드 플래쓰(David W. Plath), 1997, “환경에 대한 적응: 일본 해녀(あま)의 경우”, 『耽羅文化』 제18집, 499~507쪽.
- 밀다 뒤르케, 2003, 『바다를 방랑하는 사람들』, 장혜경 역, 서울: 큰나무.
- 박수양, 1986, 『金寧里郷土誌』, 명성종합인쇄.
- 아키미치 토모야(秋道 智彌), 2005, 『해양인류학』, 이선에 역, 서울: 민속원.
- 안미정, 1998,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濟州島研究』 제15집, 153~193쪽.
- \_\_\_\_\_, 2006, “바다밭(海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전통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제39집 2호, 307~347쪽.
- 장대수, 2002, 〈제주도산 소라, *Batillus cornutus*의 자원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경수 편, 1992, 『韓國漁村의 低發展과 適應』, 서울: 집문당.
- 정근식, 김 준, 1993, “도서지역의 경제적 변동과 마을체계: 소안도를 중심으로”, 『島嶼文化』 제11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301~332쪽.
- 제주도, 1996, 『濟州의 海女』, 제주: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 \_\_\_\_\_, 2005, 〈해양수산현황〉.

194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1, 〈유적수합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07, 〈해양수산현황〉.  
 조혜정, 1982,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성별분업에 근거한 남녀 평등에 관하여,”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상복 편, 서울: 심설당, 143~168쪽.  
 진관훈, 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제주: 각.  
 최인학, 1978, “Ami 족의 의식과 사회조직,” 『한국문화인류학』제10집, 57~70쪽.  
 최재율, 1996(1991), 『韓日農漁村의 社會學的理解』, 서울: 裕豊出版社.  
 한규설, 1993, 『공동어장과 어촌』, 서울: 참한.  
 한상복, 1976, “농촌과 어촌의 생태적 비교,” 『한국문화인류학』제8집, 87~90쪽.  
 Acheson, James M., 1981, Anthropology of Fishing,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10: 275~316.  
 Han, Sang-Bok, 1976, *Korean Fisherma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Hardin, Garrett,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New Series, Vol. 162. No. 3859. (Dec. 13), pp. 1243~1248.  
 P lsson, G sli, 1991, *Coastal Economies Cultural Account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Rosaldo, Michelle Z. and Louise Lamphere(ed.), 1974, *Woma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朴九秉, 1991, “漁業權制度と沿岸漁場所有利用形態,” 『日韓漁村の比較研究』, 京都: 行路社, pp. 223~264.  
 伊地知 紀子, 2004, “生活共同原理の混淆と創造: 韓國・濟州島の生活 실천から,” 『文化人類學』, 69卷 2号, pp. 292~312.  
 秋道 智彌, 2004, 『コモンズの人類學: 文化・歴史・生態』, 京都: 内外印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대한 권리 195

刷柱式會社.

NHK special, 1992, “サンゴ礁の海人・ムトウ: 南太平洋ムドック島,”  
〈人間は何を食べてきたか 海と川の狩人たち〉第3集.

K C I

196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Abstract)

## The Communal-Fishing and Resources Rights of Coastal Village Women : A Case Study of the Women Divers' Work in Jeju Island

An, Mi-Jeong(Special Researcher of Tamra Culture Institute,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reports on a study of communal-fishing(gathering) and resources rights of women-divers("Jamsu") in Jeju island. Based on a year-long fieldwork within the Jamsu community of Gimnyeong village in northeast of Jeju, it investigates the women divers' daily activities in the coastal water, their norms about coastal resources and conception of this important ecological and social arena.

The work of these women divers is called "*Mulgil*" in Jeju, which refers to the plain-diving(breath-holding diving) activity to collect the shell-fish and seaweed from underneath the coastal water, which the divers think to be "*Badabat* (maritime garden)". *Mulgil* is continued by women in the costal reg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regarded as 'traditional' fishing method but connected international fishing market. This paper focused on that the *Mulgil* is sustainable work because of it's resources right.

The women divers have dealt with preservation of ocean resources through informal association "*Jamsu-Hoe*". They solidify each other for a protection from unforeseeable accident in the sea. The colleagues are

forming the multiple relation which gives a help to daily life. For this reason their fishing method(plain-diving) is protected from new technology: skin-scuba, diving apparatus etc. *Mujil* involves competition of gathering among them if not destruct resources right.

Inhabitants(and *Jamsu*) are trying to find ways to share fair resources right. They have a rule of rotation of communal-gathering ground(“*maelojang*”) and additional efforts like giving food. Inhabitants look for equitable resources rights on the *maelojang*. And the right is accomplished take part in all together gathering work. So that they accomplish the “communal rights” which mean ‘equivalent value qualitatively’.

Not only has *Jamsu* the exclusive rights about some maritime resources but also symbiosis relationship. Consequently it is hard to find the tragedy of the Commons in *Jamsu* village because of symbiosis relationship.

The divers’ work in the ‘maritime garden’ is mediated by the power of a sea goddess. The local actors conceptualiz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goddess in an idiom of descent and this conceptual kinship relation is demonstrated dramatically in the periodic rituals of *Jamsukut*, shamanic rituals for the divers. The rituals symbolize that they are the owner of maritime garden as descents.

Key Words : Women Divers, *Mujil*(plain-diving), Maritime Resources, Communal-Fishing, Resources Rights, *Mauleojang*(village fishing ground), *Jamsukut*(shamanic rituals), the Commons, Jeju Island.

K C I